

스페인 이민자 사회 내 한인공동체의 위상과 현황*

전 용 갑 · 황 수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경희대학교)

1. 들어가는 말

전 세계 5대양 6대주에 거주하는 720만¹⁾ 재외동포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최근 몇 년간 각 지역별 한인들의 이주 역사와 사회적 실태를 조사, 정리하려는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북미주, 러시아, 중앙아시아, 중국, 일본 등 주요 지역의 한인이주사와 연표를 정리한 국사편찬위원회의『재외동포사 총서』시리즈 발행을 비롯하여 재외동포재단, 통일원 등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꾸준히 재외한인들에 관한 단행본과 학술논문, 편람 발행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재외동포들에 대한 정부와 학계의 관심은 주로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북미주, 중국, 일본 등 거점 지역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에도 프랑스와 독일, 영국 등 주요 국가를 제외하면 다른 유럽국가 한인들에 대한 연구는 미약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스페인의 경우 양국의 외교관계가 수립(1950)된 지 60여년의 세월이 흘렀으며 1960년대 중

* 이 논문은 2012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1) 재외동포재단 자료. www.okf.or.kr/portal/OkMainView.do

후반 라스팔마스의 원앙어업기지를 중심으로 한인들이 본격 진출한지 거의 반세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체계적인 학술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11년 국사편찬위원회 『재외동포사 총서』 시리즈의 일환으로 스페인 전체 교민에 대한 연구가 A4지 약 20매 정도 분량으로 이루어진 것이 거의 유일한 관련 학술자료로 볼 수 있을 듯하다.²⁾

이러한 연구 부재의 원인으로는 다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우선 스페인 전체 한인사회의 규모가 약 3,000-4,000명 내외³⁾로 북미주와 중국, 중앙아시아와 중남미는 물론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다른 서유럽 주요국가의 한인사회에 비해서도 매우 작기 때문이다. 소규모 교민사회에 대한 관심의 밀도는 희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스페인에 대한 국내의 전반적인 관심 부족을 들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노무현 대통령의 스페인 방문(2007)과 대한항공 직항로 개설(2007), 마드리드 한국문화원 개원(2011) 등 교류의 몇몇 상징적인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한국인들의 의식 속에 스페인은 여전히 ‘투우와 플라멩코의 나라’, ‘프리메라 리가와 무적함대의 국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관심부족은 유라시아 대륙의 동과 서 양극단에 위치한 지리적 거리에서라기보다는 역사적으로 사회, 문화적 교류가 드물었던 두 나라 사이의 심리적인 거리에서 기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인 공동체에 대한 관심의 부재는 스페인 현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최근 들어 중국 출신 이주자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동아시아 이민 집단에 대한 스페인 정부와 학계의 관심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인공동체에 대한 현지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스페인 한인들에 대한 국내의 관심부족과 마찬가지로 이유-소규모 공동체이며 양국 간의 교류가 적었다는 -에서일 것이다. 2000년 이후 스페인이 아시아 지역 연구기관인 카사 아시아(Casa Asia)를 설립하였으며(2003), 바르셀로나 자치대학(U.A.B.)과 폼페우 파브라대학(Pompeu Fabra), 마드리드 자치대학(U.A.M.) 등 몇몇 대

-
- 2) 국사편찬위원회 주관의 이 기획에 본 논문 공동저자 2 명이 연구원으로 참여하였다. 두 연구원은 2011년 자료수집과 스페인 현지실사를 통해 국사편찬위원회에 『스페인 한인사회: 이주역사와 현황』이란 제목의 20매 분량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3) 주 스페인 대한민국대사관의 최근 통계(2009년)에 의하면 스페인 거주 동포 및 체류자는 총 3,647명(본토 2,381명, 라스팔마스 1,266명)이다. www.esp.mofat.go.kr

학에 동아시아학 정규 학위과정을 개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대부분은 아직 중국과 일본에 치우쳐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기획되었다. 우리는 스페인 이주민 집단에서 한인공동체가 차지하는 위상과 현황을 살펴볼 것인데, 직접 참조할만한 선행연구가 극히 적은 상황에서 스페인 이민법안의 변천사와 아시아 이민집단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간접적인 방식으로 논지를 전개해 나갈 것이다. 스페인 이민법안의 변천사는 이민법이 이주민들의 사회, 경제적 활동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한 현지사회의 태도와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즉, 법안의 변천사를 통해 스페인 사회의 전반적인 ‘이주환경’을 알 수 있으며 소규모이지만 한인들도 그러한 ‘이주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스페인 내 한인공동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 이민 집단 내에서 한인의 위상은 중국, 일본 등 다른 아시아 이민 집단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 함께 언급되는 한인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 과정은 한인 공동체를 바라보는 현지의 인식을 비교적 근접 거리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참고로 본 논문의 저자들은 2011년 국사편찬위원회의『재외동포사총서』스페인 분야 연구에 참여한 바 있으며 본 논문에서 언급되는 기초적인 데이터들은 2011년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했음을 밝힌다.

2. 스페인의 이민법안의 변천 과정과 외국 이주자 현황

1) 스페인 이민법안의 변천 과정

한인공동체는 스페인 내 여러 외국인 이민자 집단 중 하나에 속하며 모든 이민자들에게 적용되는 스페인의 이민법 관련 제도와 정책은 한인들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서론에서 언급했듯 이민법안은 이주자들에 대한 사회, 경제적 조건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대하는 현지 사회의 태도와 가치관 등 전반적인 ‘이주환경’을 추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원래 스페인은 전통적으로 자국으로 유입되는 외국인보다 해외로 나가는 자국민이 더 많았던 인력 수출국이었던 까닭에 이민법도 이민송출법안(Ley de Emigración)이 먼저 제정(1971)되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스페인의 비약적인 경제성장에 따라 해외에서 자국으로 유입되는 외국인이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법안의 중점 역시 이주민 수용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되었다.

외국인 이주자의 수용과 관련된 법률체계가 정비된 것은 1985년 「외국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법안」이라고 불리는 「조직법(Ley Orgánica) 7/1985」(LO 7/1985)이 발효되면서부터이다. 이 법안은 비록 중도좌파 정권인 스페인 사회노동당(PSOE) 집권 시기에 제정되었으나 내용은 그다지 진보적이지 못했다. 즉 외국인의 입국자격과 합법적인 체류 조건을 강화하고 노동허가증과 체류허가증의 유효기간을 단축하였으며 가족합류를 허용하지 않는 등의 엄격한 제한 조치를 명시하고 있었다. 이 시기 스페인 내 외국인의 비중이 높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이 법안은 유럽공동체 가입(1986)을 앞두고 프랑스, 영국 등 이미 이민자 문제가 불거진 다른 유럽 국가들을 의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전보다 까다로운 체류조건으로 인해 기존에 거주하던 외국인들마저 불법체류로 내몰리게 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법 제정 2년 만인 1987년 문제가 있는 조항에 대해 위헌판정을 내리게 된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외국인의 국내 유입이 급증함에 따라 보다 현실적인 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0년에 「조직법(Ley Orgánica) 4/2000」(LO 4/2000)이 발효되었다. 이 법안은 외국인들의 사회적 통합과 권리신장에 역점을 둔만큼 2년 이상 체류한 불법이민자가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모든 외국인 이민자의 집회, 결사, 시위, 파업권 인정, 18세 미만자의 교육권, 가족합류를 허용하였다. 이 시기가 보수적인 중도우파 정권인 국민당(PP)의 집권기임을 감안할 때 전 단계와는 달리 개방적인 내용을 담은 점이 다소 의외라고 할 수 있으나, 당시 스페인 경제의 고속성장과 부동산 건설 붐으로 인한 대규모 저임금 인력의 필요성, 그리고 국가 간 이주가 활성화된 글로벌 패러다임 등을 고려하면 큰 틀에서 이러한 정책적 변화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불법이민 등 외국인 문제가 사회쟁점

화 되면서 국민당은 기존의 법안을 대체할 「조직법(Ley Orgánica) 8/2000」(이하 LO 8/2000)을 통과 시킨다. LO 8/2000은 불법이민과 합법이민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여, 합법적 거주자에 대해서는 권리를 인정하지만 불법 거주자에 대해서는 권한을 대폭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⁴⁾ 이러한 배경에는 1996년 1기 집권이 카탈루냐의 일치와 단결(CiU), 바스크민족당(PNV), 카나리아 동맹(CC) 등 지역 정당들과의 제휴를 통해 이루어졌으나, 2000년 봄, 총선에서 단독으로 정권을 장악했던 국민당의 자신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 층 강화된 이민법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특히 불법이민과 외국인 범죄 등으로 자국민들의 정서가 악화되자 국민당 정부는 기존보다 더욱 강화된 내용을 담은 「조직법(Ley Orgánica) 14/2003」(LO 14/2003)을 제정하기에 이른다. 이 법안의 쟁점 중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외국인 정보를 경찰 등 공권력이 열람하고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열어 준 것이었다. 「LO 14/2003」의 시행으로 외국인들이 자발적 등록을 꺼림에 따라 불법 체류자들은 의료와 교육, 노동을 비롯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으며 인권단체들의 반발을 초래하였다. 반 외국인 정서를 노골화한 이 법안이 발표되자 스페인 내 외국인 사회의 분위기는 급속히 냉각되었으나 전체적인 이민자의 수는 스페인 경기의 호황으로 인해 감소하지 않았다. 2004년 3월 실시된 스페인 총선에서 마드리드 3.11 테러로 당초 예상과 달리 중도좌파인 스페인사회노동당이 승리하고 2008년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이전 국민당 정권 시대의 이민정책도 다소 완화세를 보이게 되었다. 재집권에 성공한 스페인사회노동당은 「조직법(Ley Orgánica) 2/2009」(LO 2/2009)을 통해 새로운 이민 정책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노동허가증을 발행할 수 있고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외국인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비정부기구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하는 등 상대적으로 외국인의 인권에 관심을 두기도 하였으나 불법체류자의 구금기간을 40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 가족합류 조건을 배우자, 미성년자 자녀, 65세 이상의 부모 중

4) Ana María López Sala, "La política española de inmigración de las dos últimas décadas", <http://digital.csic.es/bitstream/10261/11920/1/Art%C3%ADculo%20Pedro%20Garc%C3%ADa%20Cabrera.pdf>.

본국에서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 제한하는 등 자격 요건을 강화하기도 하였다.⁵⁾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스페인의 이민정책은 집권 정당의 이념적인 성향이외에도 주변 유럽국가와의 관계,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정서, 스페인의 경제상황 등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시기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 왔다. 하지만 스페인의 외국인 이민이 급증한 2000년대 이후 이민법안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지속적인 규제와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2008년 재정위기 이후 실업률이 증가하고 경기가 침체되면서 2010년에서 2011년 사이에 처음으로 외국인이 감소하기도 하였으나 이민자 법안은 아직 “증(證)이 없으면 노동할 수 없고, 노동할 수 없으면 증도 없다(Sin papeles no hay trabajo y sin trabajo no hay papeles)”는 말처럼 불법이민 통제 등과 같은 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인공동체의 경우 아직 소규모 집단이기 때문에 북아프리카나 중남미의 일부 국가, 그리고 최근의 중국이주자들에게서 자주 드러나는 것처럼 불법이주문제는 심각하게 부각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최근 10년간 스페인 내 외국인주자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한인들의 경우 아직 초기 이주자나 그들의 2,3세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신규 한인 이주자 집단의 출현이 없었다는 점도 불법체류문제가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않은 이유로 거론될 수 있다. 불법체류사태가 심각하지 않다는 사실은 한인공동체가 현지에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불법체류자가 많은 일부 국가 출신 이주민의 경우 비자갱신, 체류증과 노동허가증 발급 등의 과정에서 매우 까다로운 심사절차를 밟아야 함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다만, 불법이민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이는 곧 전체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낳고 있다는 점에서 한인들도 이에 따른 간접피해까지는 비켜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5) *Ibid.*

〈표 1〉 스페인 이민관련 법안의 변화

법안	핵심내용
LO 7/1985	입국 자격, 합법 체류 조건 대폭강화. 노동허가증, 체류허가증 유효기간 단축 가족합류 허가치 않음 ⇨ 외국인 대량 불법화
LO 4/2000	외국인 사회통합, 권리신장 2년 이상 체류 불법민의 합법화 기회 제공 교육권 보장, 가족합류 허용
LO 8/2000	불법이민, 합법이민 구분 명확 불법 거주자 권한 대폭 제한, 추방 강화
LO 14/2003	자발적으로 주민등록한 이민자의 최소한의 사회복지 혜택 제공 자국 내 외국인의 정확한 현황 파악
LO 2/2009	지방자치단체가 노동허가증 발급 가족 합류 조건 강화

2) 스페인내 이민 수용 현황

오늘날 스페인은 전체 인구 4.700만 명 중 약 12%에 해당하는 570만 명이 외국인인 다문화 국가이다. 유럽의 대표적인 이민 수용국으로 스페인을 들 수 있는 것은 외국인 이주자 수가 많기도 하지만 <표 2>에서 보듯 최근 10년 사이의 급격한 성장세 때문이다.⁶⁾ 즉 외국인 이주자는 2000년 스페인 전체 인구의 약 2.28%에 불과하였으나 2009년에 약 12%로 10년 사이에 다섯 배 이상 증가하였다. 스페인은 인구 대비 외국이주자 비율이 독일 보다 낮지만 2000년 이후 외국인 비율 증가세가 프랑스의 8배에 달하는 등 최근 들어 외국인 이주자가 가장 급격히 늘어난 국가이다.⁷⁾ 이주자 숫자의 증가는 곧 이 기간 스페인 경제의 성장세를 반영한다. 제조업보다는 3차 산업의 비중이

6) J. Arango, “Europa y la inmigración: una relación difícil” en C. Blanco (ed.), *Migraciones: nuevas moviidades en un mundo en movimiento*, Barcelona, *Anthropos*, 2006, pp. 91-111.

7) *Ibid.*

72%에 달하는 스페인 경제의 구조적 특성(2011년 자료)상⁸⁾, 그리고 국내 총생산의 10.7%, 전체 고용의 12.6%를 담당하며 스페인을 대표하는 산업으로 자리 잡은 관광업의 특성상 외국인 노동자들은 주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 일기 시작한 건설붐은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수요를 불러일으켰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스페인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중남미 출신 이주자와 모로코 등 지리적으로 인접한 북아프리카 출신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2004년 유럽연합의 범위가 동유럽으로 확대되면서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동구 출신 이주자들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2008년 이후 스페인 경제위기의 여파로 2011년을 기점으로 외국인 이민자 수가 다소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파악되며, 경기가 호전되면 예전처럼 이주자 증가추세는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 최근 30년간 스페인내 외국인 이주자 수

연도	외국이주자 수	전체 인구 대비 비율(%)
1981	198,042	0,52
1986	241,971	0,63
1991	360,655	0,91
1996	542,314	1,37
1998	637,085	1,60
2000	923,879	2,28
2001	1,370,657	3,33
2002	1,977,946	4,73
2003	2,664,168	6,24
2004	3,034,326	7,02
2005	3,730,610	8,46
2006	4,144,166	9,27
2007	4,519,554	10,0
2008	5,220,600	11,3
2009	5,598,691	12,0
2010	5,747,734	12,2
2011	5,730,667	12,2

출처: 위키백과 (www.wikipedia.es)

8) 신정환, 전용갑, 『두 개의 스페인: 알타미라에서 재정위기까지』, Hufsins, 2011, p. 250.

스페인 내 외국인 이주자가 급격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한인들의 증가세는 미미한 편이다.⁹⁾ 이는 이질적인 언어적 환경과 먼 지리적 거리, 그리고 양국 간의 사회, 경제적 교류가 아직 그다지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기인한다. 비영어권 국가의 특성상 교육목적의 이민도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아직 스페인 내 한인들의 주류가 원양어업 종사자, 태권도 사범, 병아리 감별사 등, 초기 이주자들과 그들의 2,3세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재원, 유학생 등 한시적인 기간의 체류자들과 중남미 등 타 국가에서 재이주해 온 사람들을 제외하면 새로운 한인 그룹의 출현이 매우 더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3. 스페인 내 아시아계 이주민 집단 내에서 한인공동체의 위상

1) 아시아계 이주민의 역사와 유형

다음으로 스페인의 아시아 이민집단 내에서 한인 공동체가 차지하는 위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스페인은 중국이주자들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아시아 이민 집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스페인 내 아시아계 이주의 역사는 19세기 후반 필리핀 이민공동체가 존재했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필리핀이 스페인 내 아시아계 그룹 중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은 이 나라가 1898년까지 스페인의 식민통치를 받았던 역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한다. 이후

9) 스페인의 통계 자료를 담당하고 관리하는 스페인국립통계원(INE)은 자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이주자의 체류현황을 매년 집계하고 있다. 거주증소지자, 학업목적 체류자, 스페인국적취득자, 비자발급건수, 망명 및 도피상태의 외국인 등 다섯 종류로 분류한 자료에 의하면 스페인 내 전체 외국인 거주자 중 한인 이주자의 규모는 소수 집단에 해당한다. 2009년도 통계 자료에 의하면 스페인 내 거주 한인 총 2,874명(등록 및 거주증소지자 2,362명, 학업목적 체류자 512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합법 체류자에 한한 것이어서 단기체류자와 일부 존재할 것으로 여겨지는 불법체류자까지 포함한다면 그 규모는 공식집계를 약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www.ine.es

20세기 초반에는 중국 행상들이, 스페인 내전 (1936-39)이후에는 인도상인들이 스페인으로 유입되었다. 1970년대에는 요르단, 시리아, 팔레스타인 등 서남아시아 사람들이, 1980년대에는 혁명을 피해 온 이란인들이 들어오기도 했다.¹⁰⁾ 한국인은 일본인들과 함께 1960년대 중후반부터 스페인으로 유입되었다. 스페인 거주 외국인 중 소수를 차지하던 아시아계 이주자가 급증한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로 1996년부터 2004년 사이에 3배로 증가하였다. 이 시기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중국이주자의 급증인데, 중국인들은 2004년 전체 아시아 이민자 중 절반(49%)에 이르게 되고 현재 스페인 내 모든 외국인 이민 집단 중 규모면에서도 10위를 차지하고 있다. 스페인의 전체 아시아인 들 중 하나는 중국인인 셈이다. 중국이주자의 급속한 증가는 무엇보다 본국의 경제 성장으로 인해 양국 간 인적, 물적 교류가 크게 늘어난 점에 기인한다. 중국인의 급속한 증가로 그들과 외형은 물론 문화가 유사한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다른 국가 이주자들도 스페인 내에서 주목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 스페인에서는 동아시아 이주자들이 언어와 문화적 환경의 이질성 속에서도 비교적 성공한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2008년 이후 경제위기 속에서도 중국 등 동아시아계 이민들은 근면성과 성실성을 바탕으로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 현지사회의 질서와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다.¹¹⁾

스페인 내 아시아 이민 실태를 연구한 바르셀로나 자치대학의 호아킨 벨트란 안톨린(Joaquín Beltrán Antolín) 교수는 아시아 이주자의 유형을 이주 역사와 직군(職群)별 특성에 따라 ‘상업적 이주(la diáspora comercial)’, ‘엘리트 이주(el transnacionalismo de élite)’ 그리고 ‘미숙련 저임금 이주(transnacionalismo desde abajo)’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¹²⁾ ‘상업적 이주자’ 그룹에는 주로 인도의 힌두교도와 중국 남부 저장성 출신의 상인들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진 이주민들이 속하며 이들은 스페인 내 아시아 이민자 중에서도 비교적 초기 정착자들로 꼽힌다. 여기에 1960년대와 70년대

10) Joaquín Beltrán Antolín, "Comunidades asiáticas en España. Movilidad transnacional en un territorio de frontera", *Revista CIDOB d' Afers Internacionals*, núm. 92, 2010, pp. 20-24.

11) 한국외대 빅토르 캄프루비 텔로(Víctor Camprubí Telo) 교수의 증언.

12) Joaquín Beltrán Antolín, *op. cit.*, pp. 15-37.

스페인의 관광산업 개발 당시 다른 유럽국가들에서 재이주해 온 중국인들을 포함시킬 수 있는데 이들은 주로 중국식당을 생계수단으로 삼아 정착했다. ‘미숙련 저임금 이주자’는 특별한 기술과 자본 없이 스페인으로 이주한 후 일반 노동시장이나 동포에 의해 고용되어 임금노동자로 생활하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예를 들어 가사노동에 투입되는 필리핀 여성들, 광부로 일하는 파키스탄인들, 주로 제조업, 서비스, 건설업의 노동자로 일하는 방글라데시인들, 그리고 최근 숫자가 늘어나면서 스페인 노동시장에 편입되기 시작한 중국인 등이 이에 해당한다. 벨트란 안톨린 교수의 분류에 의하면 대부분의 한인들은 ‘엘리트 이주자’ 그룹에 포함된다. 민간 및 국영기업의 상사원, 유학생, 한국과 일본의 무술사범은 물론 카나리아 제도의 한국인 이민 집단과 지중해변으로 노후를 보내러 오는 일본의 은퇴이민자들까지 이 그룹에 포함된다.

벨트란 안톨린 교수의 모델은 아시아 이주자들을 국적과 이주동기별로 유형을 분류하고 그 과정에서 간단하게나마 한인들을 별도로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한인들이 포함되는 ‘엘리트 이주자’ 그룹을 살펴보고 그의 유형분류가 한인공동체의 현실과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2) 엘리트 이주자 그룹과 한인공동체

벨트란 안톨린 교수가 우선적으로 꼽는 아시아계 엘리트 이주자 그룹은 민간대기업과 국영기업의 상사원이다. 주로 경제적 목적으로 스페인 현지에 진출한 동아시아 다국적기업이나 국영기업의 직원들이 이에 해당하는데, 숫자는 많지 않지만 스페인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의미 있는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아시아 기업의 스페인 진출은 1960년대 초반 일본 기업들에 의해 시작된 이래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한국 기업이, 그리고 2000년대 이후로는 중국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¹³⁾ 이들은 본국의 지원 하에 대규모의 투자활동을 담당하며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체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착을 목적으로 하는 이주민과는 구분된다. 하지만 일부 상사원의 경우 본국으로 귀환하는 대신 스페인에 정착하여 통역, 부동

13) *Ibid.*, pp. 24-25.

산, 여행업, 식당, 식품점 등의 자영업에 종사하거나 중소기업의 무역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 스페인에는 삼성전자, LG전자 삼성물산, 금호타이어, 한국타이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진해운, 대한항공 등 20여개의 국내 기업들이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를 중심으로 진출해있다.¹⁴⁾ 이들 대기업을 중심으로 경제위기가 본격화되기 전(2009년)까지 수출, 수입을 포함해 연간 약 40억불 대의 교역이 이루어졌다.¹⁵⁾ 상사원들은 교역과 투자과정에서 주요 업무를 담당하고 고용 창출 등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현지에서 엘리트 이주자 그룹으로 인식된다.

엘리트 이주자 집단의 두 번째 그룹인 유학생의 경우 주로 스페인의 고등 교육 기관인 대학과 대학원과정에 진학하며 일본, 중국, 한국, 대만, 인도 학생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들은 스페인이 강점을 지니는 음악, 미술 등의 예술 분야와 MBA, 어문학, 역사, 철학, 건축, 공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 진출한다. 1980년대와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아시아 유학생 중 일본 유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넘었으나 2000년을 전후하여 중국과 한국, 인도 출신 학생의 비율은 증가하는 반면 일본과 대만유학생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학생 수의 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99년 기준으로 학생체류증을 발급받은 일본인이 1,101명, 중국인이 209명이었으나 2004년에는 일본인 804명, 중국인 759명으로 그 격차가 줄어들었다. 그리고 2009년 말에는 중국인 3,485명, 일본인 698명으로 역전되었으며 이해에 한국 유학생은 512명, 인도유학생 403명의 순서였다.¹⁶⁾ 유학생들은 현지의 언어,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귀국 후 학계, 정계, 경제계, 문화계 등 주요 분야에서 자국과 스페인 사이의 교류를 주도적으로 담당한다는 점에서 엘리트 이주자로 꼽기에 부족함이 없다.

재 스페인 한인 유학생의 기원은 1960년대 초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2년 초대 주한 스페인 대사로 부임한 안토니오 비야 시엘로스 이 베니토 대사는 문화교류와 통상증진에 힘쓸 것을 천명하였고 특히 유학생 교환에 힘

14) 코트라 마드리드 무역관 자료 www.kotra.or.kr.

15) 주 스페인 대한민국대사관 자료 www.esp.mofat.go.kr.

16) Joaquín Beltrán Antolín, *op. cit.*, p. 26.

쓰겠다고 강조했다¹⁷⁾. 당시 스페인은 주요 이주 대상국이 아니었고 스페인어 또한 매우 생소한 언어였기에 1955년에 학과가 설립되었던 한국외대 서반아어과(현 스페인어과) 출신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1960년대 중반 이우영(정치학 전공), 조용훈(외교학), 김현창(스페인어문학), 조갑동(신문방송학) 등이 처음 마드리드에 도착했으며 가톨릭 사제의 신분으로 최문순(신학)이, 1967년에는 무용을 전공한 주리가 스페인 정부 초청으로 현지에 유학했다. 이후 민용태(스페인어문학), 김수희(스페인어문학 및 예술사) 등이 마드리드 대학교(현 마드리드 콤폴루텐세 대학교)에서 유학하며 청운의 꿈을 키워 나갔다. 당시 일간지의 기사에 의하면 1968년 말 스페인 체류 유학생 수는 총 23명으로 세계에서 열한 번째로 유학생이 많이 진출한 국가였다¹⁸⁾

1970년대는 유학생 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던 시대였다. 한국외대 출신의 장선영(스페인어문학), 강석영(정치학) 등이 마드리드대학에서 수학하였고, 플라멩코 기타를 공부하기 위한 유학생으로는 최초로 이훈이 마드리드 왕립 음악원에서 공부하였다. 1970년대 후반에는 박철, 1980년대에는 김한상, 김은경, 김춘진 등 주로 스페인어문학 전공자들의 박사학위과정 유학이 주류를 이루었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유학생의 전공이 다양화되어 어문학 이외에도 음악이나 미술 등 예술분야 전공자도 증가하였다. 한편 1980년대 초 경희대(1981), 고려대(1983), 서울대(1984)등 국내 주요 대학에 스페인어 관련 학과가 개설되면서 1990년대 중반 이후로는 유학생들의 출신교가 다양해졌다. 1990년대 중후반 마드리드 유학생 중 어문계열 전공 박사과정 재학생만 30-40명에 달하였으나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국내의 전반적인 인문학 침체 분위기와 맞물려 유학생 수가 급감하였다. 현재는 교환학생과 언어연수생 등 단기유학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석, 박사 과정 유학생은 2012년 현재 스페인 전역에 10여명 내외로 줄어들었다.

1960년대와 70년대 초창기 스페인 유학생들은 귀국 후 불모지였던 국내에 스페인어 보급과 학문적 토대 구축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현재 국내 학계의 원로세대를 형성하고 있다. 현재 스페인어가 개설된 전국 14개 대학에 재직

17) 「빌 주한 스페인 대사 남구 신사의 전형」, 『동아일보』, 1962.06.26일자.

18) 「외국에서 공부하는 유학생 모두 9천 4백 66명」, 『경향신문』, 1969.03.10일자.

중인 현직 교수의 상당수가 스페인 유학생 출신이며, 일부는 전문성을 인정받아 외교통상부 등 정부기관과 기업체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음악, 미술, 조각과 같은 예술분야를 공부하러 온 유학생 중 일부는 스페인에 정착하는 경우도 많은데 최근 스페인의 예술계에 활약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는 점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다.

상사원과 유학생 이외에 벨트란 안틀린 교수가 꼽는 아사아계 엘리트 이주자 그룹에는 한국, 일본의 무술사범이 포함되어 있다. 스페인에서 동양 무술, 특히 태권도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태권도는 1970-80년대를 거치면서 널리 보급되었으며 한때 스페인 국왕인 후안 카를로스 1세가 태권도를 수련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증폭되기도 하였다. 또한 1976년 5월 제 1회 유럽선수권대회와 1987년 10월 제 1회 여자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 1988년 서울올림픽에 이은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의 태권도 시범종목 채택 등은 스페인이 유럽 내 태권도의 선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관심을 바탕으로 스페인은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금메달 1개와 은메달 2개로 중주국 한국을 능가하는 성적을 거두게 되었다. 오늘날 세계적인 태권도 강국 스페인을 만들며 현지인들의 존경을 받게 된 한인 사범들이야말로 ‘엘리트 이주자’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태권도 이주의 초기 역사를 살펴보면 그 과정이 그리 간단치만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태권도 사범의 이주사는 원양어업 관계자, 유학생 등과 비슷한 시기인 196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초창기에는 태권도를 전문적으로 수련한 사범이나 선수 출신들이 아니라 한국에서 태권도를 취미로 연마했던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스페인에 진출하면서 비롯되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1965년 스페인에 유학한 한국외대 출신의 조용훈이 학생 신분으로 태권도를 교육한 것을 들 수 있다. 이후 1960년대 중후반 장이승, 김재원, 전영태, 이임선 등이 태권도 교육을 담당하는 사범으로 스페인에 도착하였는데¹⁹⁾, 당시 스페인 내에서 인지도가 낮았던 태권도는 스페인 무도협회내의 독자적인 부서로 편재되지 못하고 가라테와 같은 부서

19) 강원식, 이경명(2002), 『우리 태권도의 역사』, 상아기획, p. 244.

에 편입되어 있다가 나중에 개별 부서로 독립하게 되었다.²⁰⁾ 1970년대 초중반에는 독일에서 광부로 활동하던 몇몇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생업을 찾아 스페인을 찾게 되었고 주로 카탈루냐 주의 바르셀로나 시를 중심으로 태권도 보급에 나서게 된다. 하지만 이들은 요즈음의 태권도 전공자와는 달리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던 만큼 태권도 강습에 어려움을 겪었고 언어와 풍습의 이질성에 따른 현지 적응 문제로 일부는 유럽이나 미주의 다른 나라로 떠나거나 귀국하기도 하였다.²¹⁾

한인 사범들은 이와 같은 초기의 어려움을 딛고 오늘날 스페인을 태권도 강국으로 양성했던 것이다. 현재 스페인 전역에서 태권도를 교육하는 한인 사범의 수는 약 100 여명에 이르며 대부분 도장을 운영하고 있다.²²⁾ 한인 태권도 사범의 연합체 형태인 '스페인 태권도 친목회'가 구성되어 있어 스페인 각지에서 개최되는 태권도 관련 대회를 주관하거나 후원하고 있으며 스페인 내에 태권도 보급을 위해 역동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벨트란 안톨린 교수는 '엘리트 이주자' 그룹에 라스팔마스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한인 원양어업 종사자들도 포함시키고 있다. 라스팔마스 원양어업은 1960년대 중반 체결된 한-서 어업협정에 따라 한국인들에게 개방되었는데 1969년 대림수산이 현지에 어업기지를 설치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처음 라스팔마스로 진출한 선원들의 대부분은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많았으며 고국의 어려운 경제사정 때문에 배를 탄 사람들이 많았다. 당시 원양 어업이 대부분 참치잡이 위주였던만큼²³⁾ 트롤어선 조업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했으나 해당 기술을 미리 배우지 못했던 선원들은 근면함과 열성으로 난관을 극복해 나갔다. 라스팔마스의 성공이 알려지면서 1970년대 초반 국내 수산회사들의 대서양 어장 진출이 본격화되었다. 카나리아 제도의 라스팔마스로 향하는 선원과 주재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들의 생활에 필요한 각종 시설

20) 당시 유학생의 신분으로 태권도 사범을 했던 현지 교민 조용식의 전언. (2011년 7월 6일 현지 인터뷰)

21) 당시 유학생의 신분으로 태권도 사범을 했던 현지 교민 조용식의 전언. (2011년 7월 6일 현지 인터뷰)

22) 현 스페인 한인연합회장 고평희의 전언. (2011년 12월 9일 전화 인터뷰)

23) 심상준(1989), 『원양어업 개척사』, 시대인쇄, p.327.

관련 업종의 진출도 늘어나면서 교민 수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늘어난 교민의 편의를 위해 라스팔마스에 영사관이 설치(1974)되었고 1976년에는 총영사관으로 승격되었다. 1991년 라스팔마스 총영사관 자료에 의하면 1980년대 말과 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거주한인 1,700 명에 체류 한인 선원 4,600 명 등 총 6,000 명이 넘는 한인들이 라스팔마스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었다.²⁴⁾ 그러나 대서양 원양어업의 전진기지인 라스팔마스 한인사회는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미 퇴조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1970년대 후반부터 북아프리카 사하라 어장이 모로코와 모리타니아에 귀속되고 당시 전 세계적인 추세였던 연안 해역에 대한 주권 강화 정책으로 조업조건이 악화되었기 때문이었다. 한국의 수산회사들이 상당수 철수했지만 적지 않은 한인들은 라스팔마스에 남아 남쪽의 세네갈, 기니비사우, 시에라리온, 가나, 앙골라 등 서부 아프리카 연안의 새로운 어장들을 개척하거나 자영업으로 업종을 전환하면서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였다. 현재 라스팔마스를 중심으로 한 카나리아 자치주의 한인은 전성기 때 보다는 많이 감소한 상태이지만 1.5세와 2세 한인들이 현지사회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원양어업 종사자들을 ‘엘리트 이주자’ 그룹에 일괄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에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원양어업 종사자들은 상사원, 유학생, 태권도 사범 등 단일한 직종의 이주자들과 달리 비교적 다양한 성분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즉, 국내 기업의 주재원, 선박기술자처럼 ‘엘리트 이주자’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선원으로 현지에 온 재중 동포 등 일반적인 ‘임금노동자’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성기 때 6,000여명에 달했던 한인 모두를 ‘엘리트 이주자’의 범주로 분류하는 것이 올바른 현실을 반영한 것인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스팔마스 한인공동체는 현지 사회와 매우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며 비교적 양호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카나리아의 지역신문인 『라 프로빈시아 La provincia』지는 한인 사회에 대해 “어업경기의 쇠퇴를 극복한 예이며, 현지사회와 통합을 이룬 모범적인 사례”라고 언급하

24) 김민 편저(2006), 『민족의 향해 밝히는 한민족호 기관장. 권영호의 삶과 철학』, 재외동포재단, p.72에서 재인용.

며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²⁵⁾

43년 전 첫 번째 한국인들이 당시 호황을 누리던 어업의 열풍을 타고 라스팔마스에 정착했다. 1966년 첫 번째 한국 수산회사들이 설립되었으며 현재 약 1,200명의 한국인들이 라스팔마스에 거주하고 있다.

한인공동체는 34개의 한국수산회사에 소속된 210척의 선박들이 대규모로 조업에 나섰던 1977년 최전성기에 도달했다. 현재 선박의 수는 반으로 줄었고, 비록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아직 어업분야에 종사하고 있지만, 또 다른 많은 한인들은 그들의 업종을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판매를 포함한 여러 분야로 다변화했다. 이미 이민 3세까지 접어든 한인사회의 최대의 소망은 점점 더 카나리아 주민들에게 다가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민 1세들의 자녀와 손주들은 교육을 받기 위해 카나리아의 라스팔마스 대학(ULPGC)으로 진학하며 이 지방의 공공행정기관에서 근무하고, 카나리아 지역 역양의 스페인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줄 안다. 라스팔마스의 한국총영사관은 카나리아의 라스팔마스 대학과 문화교류 관련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호세 레히도르 총장이 한국의 여러 대학을 알고 학생 교류를 추진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한인 사회의 또 다른 기여는 1979년 설립된 한인부녀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한인부녀회는 매년 사회적 기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자선만찬을 준비한다. [...] 40 여명의 한국 부녀회원들은 행사 며칠 전부터 부엌의 열기를 마다하지 않고 초청객들의 미각을 만족시키기 위해 직접 최상의 한국음식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자선만찬을 통해 걷어낸 수익금을 매년 라스팔마스 시청에 기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벨트란 안톨린의 분류를 통해 한인 이주자들은 스페인 내 아시아 이주민 집단에서 비교적 양호한 이미지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사원과 유학생은 물론 중소 사업체, 여행업, 식당, 식품점 등 자영업에 종사하는 한인들, 라스팔마스의 수산업 종사자들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한인들이 ‘엘리트 이주자’ 집단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이는 한인 공동체가 사회, 경제적으

25) "Puentes entre Corea y Canarias", *La provincia*지 2009년 10월 20일자.

로 비교적 안정된 집단으로 평가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벨트란 안톨린의 ‘엘리트 집단’ 분류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일부 직종 종사자들이 있다. 즉 민간기업과 정부기관의 현지채용 직원이나 관광가이드, 한국식당 등 한인 업소의 직원들이 이에 해당하는데, 합법적인 거주 요건과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적 토대를 구축하고 있는 경우 ‘엘리트 이주자’의 범주에 포함시켜도 무리는 없으나 일부의 경우 ‘동족에 의해 고용’되는 ‘미숙련 저임금 이주자’의 범주에 더 가깝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나가는 말

이민법 변천 과정을 통해 살펴보았듯 스페인의 전반적인 이주환경은 외국인 이주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다. 특히 2000년 이후 외국인 이민이 급증하면서 그들에 대한 스페인 사회의 시선이 급속하게 싸늘해진 것도 사실이다. 이 나라에서 외국인 이주민 문제는 주로 불법이민, 외국인 범죄, 인종차별 등 사회적인 차원에서 제기되어왔으나 2008년 시작된 경제위기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최근에는 “이민자들이 스페인의 실업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²⁶⁾는 스페인경영자총연합회(CEOE) 회장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 불황의 요인으로도 지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 저임금을 감수 하며 그동안 스페인의 경제성장에 기여했던 외국인 이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평가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스페인 한인사회는 현지의 아시아이민 전문가로부터 대부분 ‘엘리트 이주자 그룹’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몇몇 언론보도를 통해 추정할 수 있듯 아직까지는 비교적 양호한 이미지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인식이 지속적인 관찰에 근거한 신뢰할 만한 평가인지는 쉽게 단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전체 570만 명에 달하는 스페인 내 외국인 이주민 중 한인은 불과 3,000-4,000명으로 소규모이며 한인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대서

26) 『ABC』지 2003년 7월 13일자. www.abc.es

양상의 라스팔마스섬을 제외하면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와 같은 대도시에서도 한인들에 대한 존재감 자체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이다. 현지에서 중국이민을 다룬 학술연구나 언론보도는 넘쳐나지만 아직까지 한인들만 연구대상으로 삼은 자료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와 같은 현지의 ‘무관심’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간혹 중국 등 아시아계 이주민 연구의 일부로서 한인들이 언급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현지 학계에서조차 한인이 중국인 등 다른 ‘주목할 만한’ 외국인 집단과 구분되는 고유의 공동체로 여겨지고 있지는 않다. 특히 일반인들에게 한인은 중국인과 식별조차 힘든 대상이며 스페인에서 중국인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²⁷⁾이 확산되면서 덩달아 한인들에 대한 간접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편 한인공동체 내부로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늘고 있다. 우선 무엇보다도 스페인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민인 이 나라의 경제위기는 한인들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부동산 거품 붕괴와 가격 하락으로 인한 자산의 감소,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한 자영업 분야의 불황, 고실업과 고용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한인 2, 3세의 취업문제 등은 한인들이 시급히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들이다. 또한 27대 한인회장 고평희의 전언처럼 한인사회의 융화와 자녀들의 민족성 고취 역시 소홀히 할 과제는 아닐 것이다.²⁸⁾

스페인 한인공동체는 규모면에서는 작지만 다른 지역 한인들과 구분되는 고유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전 세계 대부분의 한인사회가 대도시나 수도권권을 중심으로 형성된 데 반해 스페인의 한인들은 대서양 상의 고도인 라스팔마스섬을 공동체 출범의 요람으로 삼았으며 아직까지도 이 섬은 스페인 내 최대의 한인 거주지로서 위상을 잃지 않고 있다. 메트로폴리탄적인 성향이 강한 수도권이나 대도시와 달리 도서지방에 밀집된 한인들은 공동체의 형성과 정착 그

27) 중국이민자 집단은 ‘마피아’와 같은 전형화된 부정적 인식 이외에도 최근 중국 본국의 대국화 경향과 스페인 내 중국이민 집단의 규모와 그에 따른 경제적 영향력이 확산되면서 사회적 견제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중국공포증(sinofobia)마저 낳고 있다.

Jesús Ángel Merino Sancho, “LA INMIGRACIÓN CHINA EN ESPAÑA: ¿QUÉ IMAGEN?”, <http://www.cumed.net/rev/china/06/jams.htm>.

28) 고평희의 전언(2011년 12월 9일 전화 인터뷰)

리고 성장과정에서 타 지역 한인들과 구분되는 고유의 사회, 문화적 특성을 지녔을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스페인 한인들은 아프리카 대륙과 인접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스페인을 넘어 아프리카 국가들을 경제권으로 삼고 있으며 언어,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대서양 건너편에 위치한 중남미와의 사회, 경제적인 연계 가능성도 큰 편이다. 한 마디로 유럽과 아프리카, 스페인과 중남미의 교차로에 위치한 지정학적, 역사적 특성이 이 지역 한인사회의 특성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스페인 한인공동체를 둘러싼 모든 ‘가능성’들은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권영호, 『지혜롭게 사는 방법 II』, 도서출판 현명, 1998.
- 강원식, 이경명, 『우리 태권도의 역사』, 상아기획, 2002.
- 김민 편저, 『민족의 향해 밝히는 한민족호 기관장 권영호의 삶과 철학』, 재외동포재단, 2006.
- 신정환, 전용갑, 『두 개의 스페인: 알타미라에서 재정위기까지』, Hufsin, 2011.
- 심상준, 『원양어업 개척사』, 시대인쇄, 1989.
- 윤인진, 『코리안 디아스포라』,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4.
- 윤인진 외, 『재외한인 연구의 동향과 과제』, 북코리아, 2011.
- 「라스팔마스 순직 원양선원 납골당 준공」, 『오마이뉴스』, 2002.11.25일자.
- 「병아리 감별로 바뀐 그라나다의 코리언」, 『동아일보』, 1971.09.08일자.
- 「빌 주한 스페인 대사 남구 신사의 전형」, 『동아일보』, 1962.06.26일자.
- 「스페인 경쟁 치열한 병아리 감별사」, 『동아일보』, 1968.06.27일자.
- 「아프리카인 드림/ 라스팔마스 (상). 한국인, 검은대륙 진출 교두보」, 『세계일보』, 2002.01.30.일자.
- 「외국에서 공부하는 유학생 모두 9천 4백 66명」, 『경향신문』, 1969.03.10일자.
- 「외화 벌어들일 한국의 손」, 『동아일보』, 1965.01.06일자.

「해외로 나가는 길 (3) 유학」, 『동아일보』, 1973,07,06일자.

Arango, J., “Europa y la inmigración: una relación difícil” en C. Blanco (ed.), *Migraciones : nuevas moviidades en un mundo en movimiento*, Barcelona, Anthropos, 2006.

Beltrán Antolín, Joaquín., "Comunidades asiáticas en España. Movilidad transnacional en un territorio de frontera", *Revista CIDOB d' Afers Internacionals*, núm. 92, pp. 15-37, 2010.

López Sala, Ana María., "La política española de inmigración de las dos últimas décadas",

Merino Sancho, Jesús Ángel “LA INMIGRACIÓN CHINA EN ESPAÑA: ¿QUÉ IMAGEN?”, <http://www.eumed.net/rev/china/06/jams.htm>.

<http://digital.csic.es/bitstream/10261/11920/1/Art%C3%ADculo%20Pedro%20Garc%C3%ADa%20Cabrera.pdf>.

"Puentes entre Corea y Canarias", La provincia, 20 de octubre de 2009.

U.N ESCAP, *Migration, urbanization and development in the Republic of Korea*, Bangkok,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1980.

www.esp.mofat.go.kr

www.ine.es

www.kotra.or.kr

www.okf.or.kr/portal/OkMainView.do

www.wikipedia.es

<인터뷰>

고광희 (스페인 한인연합회장)

조용식 (스페인교민, 전 태권도 사범)

박해창 (1974-2002년까지 재 스페인 병아리 감별사)

안중현 (재 스페인 교민, 사업)

Víctor Camprubí Telo (한국외대 스페인어통번역학과 교수)

❖ ABSTRACT

Korean community in the society of immigrants in Spain: its prestige and trend

Jeon, Yong-gab & Hwang, Soo-hyun

Nowadays migrations between the countries are getting each day more active and a mixture of people with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s strengthens the hybridism, whereupon the point of view on the migration of Koreans has been changed from a diasporan perspective to an transnational one.

The expansion of the transnationalism affects the identity of the subsequent generations of the immigration giving way to a psychologically deterritorialized social identity, which is an important consideration in the study of subsequent generations of the immigration.

This study examined the Korean immigration history 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Korean community in Spain since the 1960s. The early immigrants like fishing vessel crew members, instructors of Taekwondo, chicken sexers who, despite the limits of foreigners in Spain, went to find out the source of life with no hesitation, overcame the difficulties of the early settlers and finally managed to achieve local success.

Current history of immigration that began in the mid-1960s went through the maturity during the 1970s and 80s and the Koreans in Spain these days, who have undergone differentiation in the occupational structure because of the crisis of pelagic fisheries, face new challenges due to changes in the environment of the country they reside. The Korean community is regarded as an 'exemplary minority group (Model Minority)' even though it is a minority group in number.

Now that the interest for overseas Koreans is higher than ever at home and abroad, due to the economic growth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spread of its cultural influence -the Korean Wave as proof-, and the overseas Koreans suffrage conducted, the research of the Korean residents in Spain will be important as an advanced research of an unexplored field, as well as an

opportunity to broaden the horizons of the existing study area that has mainly dealt with major regions only.

Key Words

재 스페인 한인사회, 초국가주의, 이주, 혼종성, 모범적 소수

Korean community of Spain, transnationalism, immigration, hybridism, Model Minority

논문접수일: 2012. 11. 10.

심사완료일: 2012. 12. 07.

게재확정일: 2012. 12. 21.